

The illustration depicts a dramatic scene from the Warcraft universe. In the center, a woman with long blonde hair, wearing a white and blue robe with a dark blue hooded cape, stands amidst a swirling, ethereal blue and green energy. She holds a glowing, crystalline staff. To her right, a massive, towering green dragon-like creature with glowing eyes and a fierce expression looms over the scene. In the background, a group of armored warriors, some in red and gold armor and others in blue and white, are gathered on a rocky ledge. The sky is a deep, dark blue with a bright, glowing orb. The overall atmosphere is one of intense magic and conflict.

WORLD
WARCRAFT
THE WAR WITHIN

중심지

작가 ADAM CHRISTOPHER

4

마란의 선택

스토리

ADAM CHRISTOPHER

일러스트

BRUSH SAUCE STUDIO

편집

CHLOE FRABONI

디자인 및 아트 디렉션

COREY PETERSCHMIDT

세계관 자문

SEAN COPELAND

창작 자문

RAPHAEL AHAD, KEITH RILEY CO, AARON OLSON,
ABIGAIL MANUEL, CHRIS METZEN, STACEY PHILLIPS,
KOREY REGAN

제작

BRIANNE MESSINA, AMBER PROUE-THIBODEAU,
CARLOS RENTA, TAKAYUKI SHIMBO




Blizzard.com

© 2024 Blizzard Entertainment, Inc. 블리자드 및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이 소설은 픽션입니다. 이름과 캐릭터,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창작물이거나 픽션으로 사용된 소재이며, 생사를 막론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저자 또는 제3자 웹사이트 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어떠한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고원에 어스름이 드리울 무렵, 스칼은 망치 주둔지의 여러 망루 중 하나에 올라 어둑해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스트롬가드의 가장 높은 탑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내려앉는 밤의 어둠에 금세 삼켜졌다.

스칼은 제이나의 임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상황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었다.

“고엘!”

게야라가 망루에 올라와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순간 그는 분노의 열기가 다시 치솟았지만, 재빨리 가라앉혔다. 그는 홀로 시간을 보내며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을, 그리고 그에 대한 감정을 수도 없이 곱씹었다. 확신은 없었지만 게야라와 싸우러 온 건 아니었다.

마그하르 지도자는 옆쪽 벽에 기대어 섰다. 스칼은 흐르는 긴장감을 느꼈고, 그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오.”

게야라가 고개를 숙였다. “사과할 사람은 접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 회의 도중에 꺼낼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녀는 고개를 들어 스칼의 시선을 마주했다. “죄송합니다. 진심이에요. 순간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만.”

“나도 그랬소. 사실 지금도 화가 나 있だ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마움으로 바뀔 거라는 걸 알지.”

게야라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움이라. 아무래도 아그라와 둘만의 비밀을 좀 더 만들어야겠군요.”

스랄이 미소를 지었다. “게야라. 그대는 선물 같은 존재요. 예상치도 못한 선물. 나와 다른 시간의 길, 다른 세상에서 온 누이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말이오.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됐으니까. 그대를 통해 우리의 부모님에 관해 알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 않소.”

“듀로탄과 드라카, 다른 건 몰라도 제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해 주셨을 겁니다.” 게야라가 나긋하게 말했다. “그분들이 제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요. 함부로 아버지 얘기를 입에 담은 게 후회됩니다. 그분의 추억을 더럽힌 것만 같아서.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이 서글플 따름입니다.”

스랄은 고개를 저었다. “그대가 태어나기 전에 잠시나마 그분들을 알 수 있었고, 어둠땅에서는 어머니의 영혼을 만나 함께 싸울 수 있는 행운을 누렸어요.” 스랄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만남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누이까지 생기다니. 듀로탄과 드라카에 대한 기억을 돌아보는 게 고통스럽지 않다면 좀 더 알고 싶구려. 사람이란 결국 기억의 생물 아니겠소. 듀로탄과 드라카는 우리를 통해 계속 살아갈 것이오.”

둘 사이에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아그라 말입니다.” 게야라가 운을 띄웠다. “너무 나무라진 말아 주세요.”

스랄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대와 아그라 생각만 했어요. 비밀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지 나도 잘 알지. 그걸 알리는 것도 아그라가 할 일은 아니었고 말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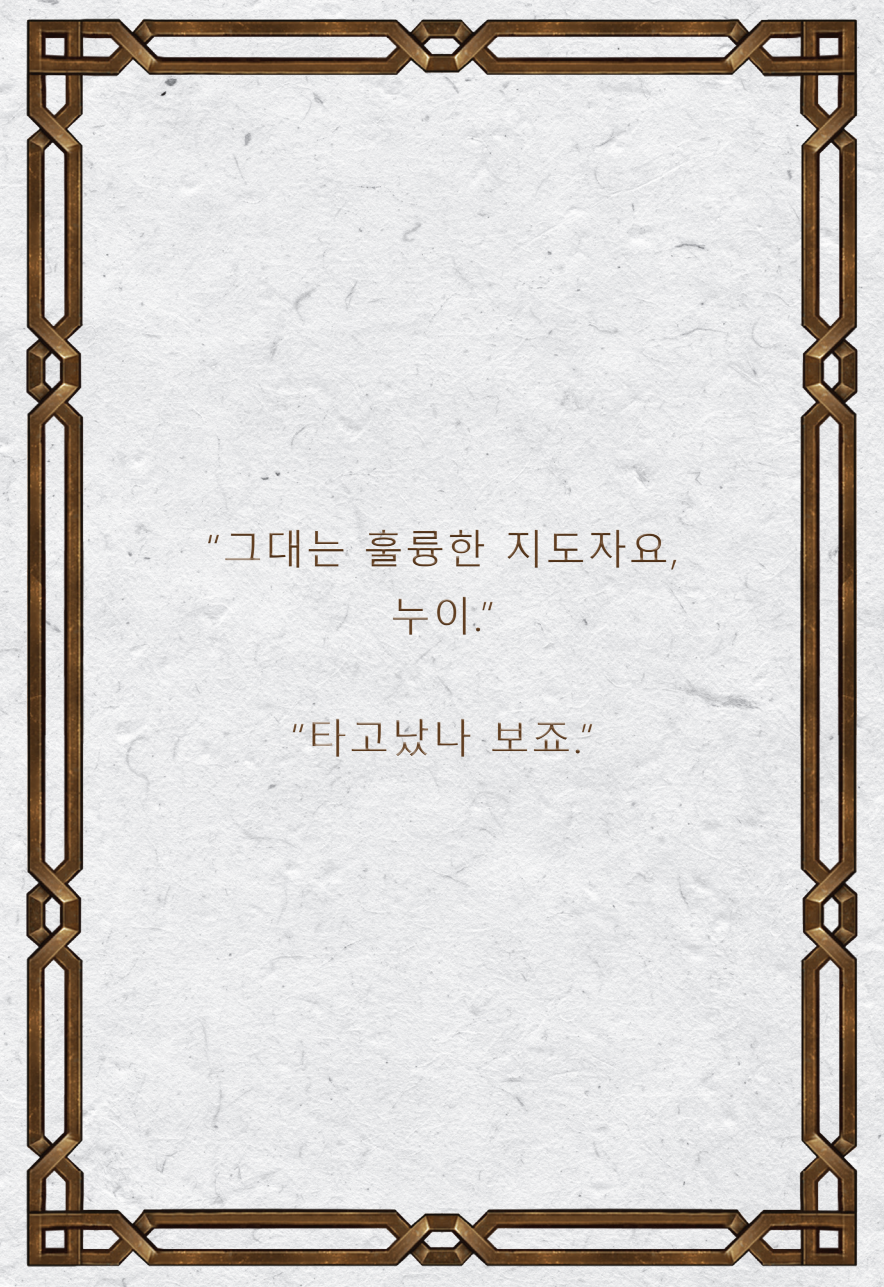
게야라가 고개를 숙였다. 둘은 망루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겼다. 망치 주둔지의 안뜰이 내려다보이는 지점이었다. 밤이 깊어도 코르크론은 훈련에 여념이 없었다.

“그대는 훌륭한 지도자요, 누이.”

“타고났나 보죠.”

스랄이 한숨을 쉬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훨씬 더 시급한 일이 있었다.

“내 말을 들어 주시오, 게야라. 나는 우리 동족이 불의에 시달리는 걸 한평생에 걸쳐 보았소. 한평생이란 말로도 부족하지. 그래도 난 하나의 길에 충실하고자, 모든



“그대는 훌륭한 지도자요,
누이.”

“타고났나 보죠.”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이상을 향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요.” 스랄이 안뜰에서 훈련 중인 코르크론을 향해 손짓했다. “전투를 통해 그 이상에 도달해야 할 때도 있지. 하지만 평화를 통해 도달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게야라가 고개를 저었다. “마란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고엘. 이 고원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은 안중에도 없더군요. 우리에게 존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믿는 자입니다.” 이 망루 위에 스트롬가드의 깃발이 휘날릴 때까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게야라가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빛의 결속은 만났을 때 선택권을 주기라도 했습니다.”

스랄은 게야라가 말한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듯 주먹거렸다. “그대의 첫 번째 책임은 어디까지나 백성이지. 부정하지 않으리다. 대신 과제를 하나 내보겠소, 게야라. 스트롬가드가 어떤 지점에서 고통을 느끼는지 알아내 보시오. 그런 길을 택하게 만든 고통의 원인을 알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요. 마란이야 승리를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할 사람이 아닐지 몰라도, 스트롬가드 주민들은 또 모르거든.” 그는 아제로스의 두 달, 빛의 여왕과 푸른 아이가 하늘로의 여정을 막 시작한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아라시 고원만이 아니라 아제로스 전체가 위험에 처했소.”

“잘아타스. 당신이 잠자는 사이 아그라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밀어내 버리긴 했지만요.”

“제이나가 마란을 설득할 거요. 장담할 수 있소.”

게야라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마란이 그렇게 쉽게 동의할 사람은 아닐 텐데요.”

스랄이 한쪽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렇다면 그대는?”

“도울 겁니다, 스랄. 그럴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지만 전투는 하나씩 차는차근.....”

멀리서 경보를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게야라는 얼어붙었다가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스랄도 뒤따랐다. 곧이어 정문으로 달려오는 기수가 보였다. 오크는 다시 한번 뿔피리를 불었고, 이번엔 망치 주둔지 내부에서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봐라!” 게야라가 난간에서 상체를 내밀고 외쳤다. “무슨 일이지?”

“7군단과 스트롬가드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기수의 늑대 탈것이 뒷다리를 딛고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달을 향해 부르짖었다. “적이 진격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뜰은 정신없이 분주해졌다. 전쟁 뿔피리가 울리자마자 코르크론과 마그하르가 모여들었고, 빠르게 기수 부대를 편성했다. 스랄은 조금 전 게야라가 서 있던 곳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스랄은 코르크론이 전투 준비를 하고 정문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스랄!”

마지막 기수들이 안뜰을 빠져나갈 무렵, 스랄은 아이트리그와 아그라가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서둘러 돌과 합류했고,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인사를 나눴다.

“아이트리그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그라가 말했다. “그대가 명령하면 코르크론은 후퇴할 거예요.”

아이트리그가 작은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전쟁이 터질 수도 있소. 바로크 사울팽이 목숨을 바쳐 일궈낸 휴전을 이리 허무하게 잃을 생각은 추호도 없소.” 그가 스랄의 어깨에 무거운 손을 얹었다. “말만 하시오, 친구여. 탈가르에게 명령을 전하리다.”

“아니.” 스랄이 끼어들었다. “아직은 안 되오. 게야라의 지휘권을 거스르면 전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킬 뿐이오.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만나봐야겠소.”

“행운을 빌겠소, 친구여.” 아이트리그가 말했다. 늙은 대족장이 황급히 출발하자, 스랄은 안뜰을 둘러보다가 반대편에 있는 늑대 마구간을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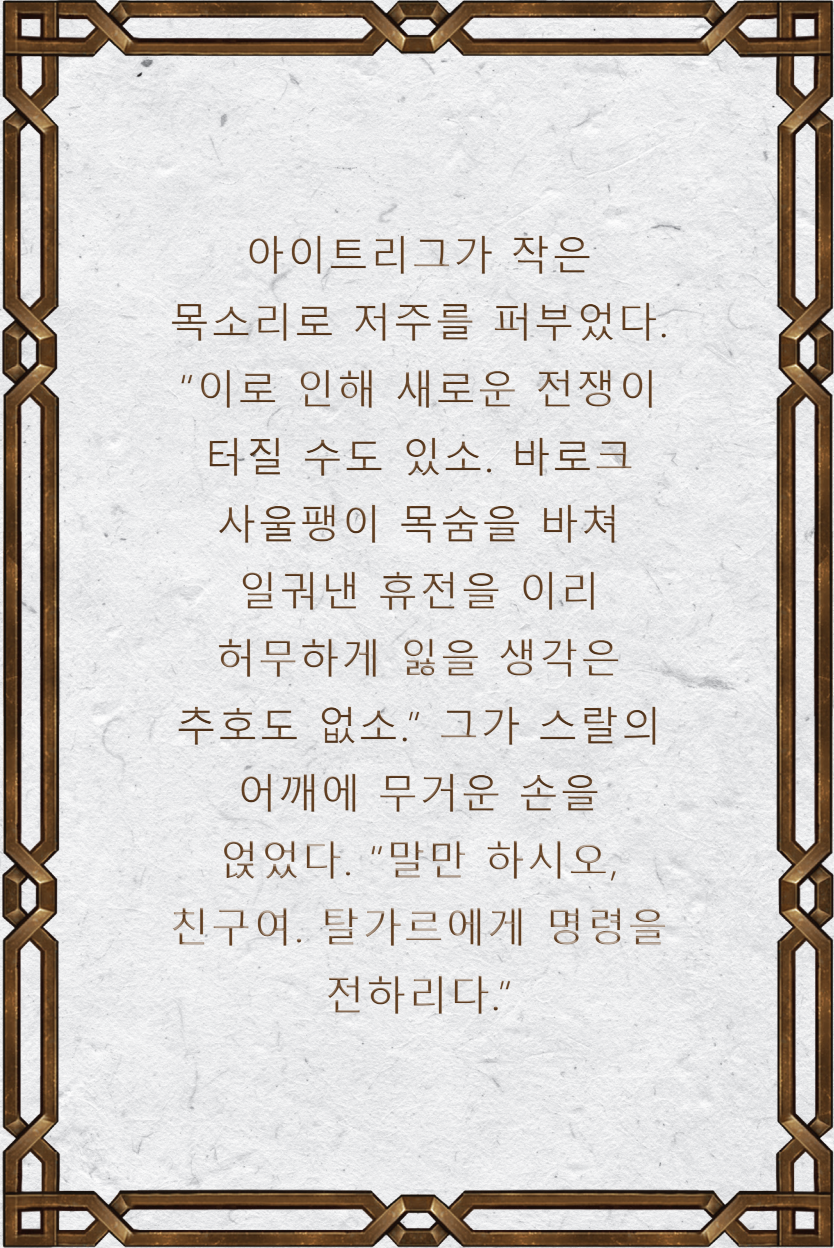
“갑시다.” 그가 배우자를 불렀다.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오.”



제이나가 눈을 떴다. 어둑한 방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힘겹게 일어났지만, 머릿속에 천둥처럼 들이치는 통증 때문에 다시 또 쓰러질 뻔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숫자를 열까지 셴 뒤, 이번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번에는 괜찮았다. 제이나는 처소로 돌아와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오밤중이었다는 것이지만,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을 어루만졌다. 자타시아의 화살은 겨우 스쳤을 뿐이었지만, 수면 독을 묻히기엔 충분했다.

아니면 설마? 제이나는 지금 막 일어났다. 밤이긴 했지만 마란이 생각했던 것보다 독의 효과가 훨씬 빨리 사라졌음을 알 수 있었다.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젖히자 높이 뜬 두 개의 달이 환하게 비추는 도시가 드러났다. 도시는 조용하고,



아이트리그가 작은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전쟁이
터질 수도 있소. 바로크
사울팬이 목숨을 바쳐
일궈낸 휴전을 이리
허무하게 잃을 생각은
추호도 없소.” 그가 스랄의
어깨에 무거운 손을
얹었다. “말만 하시오,
친구여. 탈가르에게 명령을
전하리다.”

고요했다. 너무나도. 스트롬가드 시민들이야 밤이 왔으니 집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었지만, 7군단이나 스트롬 군대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거리가 멀긴 했지만 선명하게 들렸다. 명령을 외치는 소리. 판금 갑옷이 덜컹덜컹거리는 소리. 육중한 준마의 발굽 소리. 그와 함께 행진하는 강철 장화의 우레와 같은 소리. 저 멀리 성벽 뒤로 활활 타오르는 햇불을 든 병사들이 한밤을 배경으로 삼아, 오크의 영역으로 진격하는 행렬이 보였다.

제이나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너무 늦기 전에 마란을 막아야 했다.

제이나는 지팡이를 집어 들고 마력을 집중해 저 밖으로 순간이동했다.



망치 주둔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산봉우리 꼭대기. 스랄은 재빨리 늑대에서 내려 우뚝 솟은 바위의 그늘진 곳에 엄폐한 뒤 전장을 살폈다. 아그라의 탈것이 비탈을 따라 올라오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고는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망치 주둔지에서 오는 동안 어둠과 전투로 인해 방해받긴 했지만, 어쨌든 게야라를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 스랄은 아그라와 함께 저 아래의 전장을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오늘 밤 무의미하게 목숨을 잃게 될 건 전사들뿐만이 아니었다. 고원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양측의 민간인들도 있었다. 평범한 사람들까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무의미한 싸움에 휘말리게 될 것이 자명했다.

“고엘! 저쪽을 봐요!”

스랄의 시선이 아그라가 내뻗은 손을 따라갔다. 그 끝에는 게야라가 있었다. 약 1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는 마그하르의 우두머리는 탈것에 올라탄 채, 감히 제 앞으로 다가온 스트롬가드 병사에게 도끼를 휘두르고 있었다. 병사가 쓰러지자 게야라는 탈것을 타고 언덕 아래로 사라졌다.

“갑시다.” 스랄이 말했다. “게야라를 만나야 하오.”

하지만 아그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대는 임무를 수행하세요. 제가 할 일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전장을 내려다보았다. “정령들이 이 폭력 사태를 막는 데 힘을 빌려줄 것 같아요. 설령 고원의 땅을 찢어발기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예요. 저는 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랄의 낯빛이 근심으로 물들었다. 아그라의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니었지만,

하지만 아그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대는 임무를
수행하세요. 제가 할
일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전장을 내려다보았다. “
정령들이 이 폭력 사태를
막는 데 힘을 빌려줄 것
같아요. 설령 고원의 땅을
찢어발기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에요. 저는 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많은 친구들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었다. “확실하오?”

아그라가 늑대에 올라타며 고개를 고덕였다. 일순간 아그라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드는 게 보였고, 곧이어 외침이 들렸다. “고엘, 얌드려요!”

머리 위 어딘가로 날아오는 포효하는 화염의 열기에 스랄은 아그라의 명령대로 몸을 피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언덕을 힐끗 보니, 불의 정령이 자신들을 향해 전진해 오는 7군단 병사 분대를 향해 돌진하는 광경이 보였다. 아그라의 명령에 따라 불의 정령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폭발했고, 그 충격파가 인간들을 밀어냈다.

즉각적인 위협이 사라지자 스랄은 몸을 일으켜 세웠다. 멍해진 인간들은 땅바닥을 구르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아그라에게로 돌아갔다.

“걱정할 이유가 없겠구려.” 스랄은 칭찬을 하면서도, 그 칭찬이 목 밖으로 나오는 데 살짝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그라의 정령술은 실로 대가의 경지에 닿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스랄이 헛기침을 내뿜었다. 그러자 아그라가 미소를 지었다.

“결국 그대에게 돌아올 거예요, 암오쉬. 저도 그렇고요.”

스랄은 아그라가 전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내 그는 늑대로 돌아와 고삐를 잡았다.



제이나는 스랄과 처음 도착했던 그 우묵한 공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 주변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생생하게 느끼며 몸을 돌렸다. 제이나 뒤로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란 7군단 분대가 있었다. 이들은 능선 뒤 양쪽에서 모습을 드러낸 코르크론을 보고 무기를 세웠다. 오크들은 제이나의 귀를 울릴 만큼 큰 함성을 지르며 언덕 아래로 돌진했다. 인간들도 그에 뒤질세라 고향을 지르며 전투에 대비했다.

제이나는 정확히 그사이에 있었다. 그녀는 발끝으로 돌며 지팡이를 크게 가로로 휘둘렀다. 수정에 맺힌 마력이 주변을 환하게 밝혔고, 제이나의 손에서 서리와 눈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의 주위로 거대한 물의 정령이 튀어 오르며 나타났고, 파란색과 분홍색이 뒤섞인 사과 한 알만한 빛의 구체가 순식간에 거대한 마력의 구슬로 변했다. 구슬은 파도처럼 쇄도하며 인간과 오크를 밖으로 밀어냈다.

제이나는 비탈을 질주하며 이미 또 다른 정령을 소환하고 있었다. 그때 한 병력이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지팡이를 들어 비전 마력을 집중했다. 혼자서 전투를 막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싸우는 자들을 떼어놓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작정이었다.



게야라는 탈것을 타고 전장이 된 고세크 농장의 밀밭을 가로지르며 내달렸고, 도끼를 휘둘러 뒤따르는 코르크론 군대를 집결시켰다. 이미 7군단이 영토에 가까이 다가와 있었고, 아라시 고원의 그늘진 산기슭에서 양쪽의 선봉 기수들이 충돌하는 소리가 들렸다. 밤에 공격하는 건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걸 게야라는 알고 있었지만, 마란 트롤베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다.

하지만 멀리서 생생한 색채의 섬광을 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게야라는 주위의 전사들이 적과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이는 틈을 타, 탈것에게 근처 언덕 꼭대기로 갈 것을 명했다.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인간의 편에서 전투를 돕는 마법사가 얼룩뿔이 보였다.

제이나 프라우드무어.

게야라는 몸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얼라이언스의 배신은 형제가 아는 것보다 뿌리가 깊은 듯했다. 게야라는 저 휘방꾼을 막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녀는 탈것을 타고 전투의 함성을 내지르며 마법사에게 달려갔지만, 다음 언덕에 올라서서야 자신이 공격에 정면으로 달려들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아침 햇살처럼 밝은 빛의 섬광이 먼저 보였고, 제이나가 소환한 물의 정령이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게 보였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정령이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게야라는 도망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탈것의 고삐를 당겨 기수를 돌렸고, 야수는 저항하듯 울음소리를 토했다.

정령이 폭주하는 코도처럼 게야라를 덮쳤다. 마법의 소환수가 보라색 빛을 내며 사라지자 게야라는 탈것에서 튕겨 나간 자신을 발견했다.

작가 소개

Adam Christopher는 *Star Wars: Shadow of the Sith* 및 *Stranger Things: Darkness on the Edge of Town*을 집필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또한 큰 인기를 끌었던 CBS TV 쇼 *Elementary*와 수상 경력에 빛나는 *Dishonored* 비디오 게임 프랜차이즈의 타이인 소설을 맡기도 했다. Adam Christopher는 *Archie Comics*의 21세기형 슈퍼히어로 *The Shield*의 공동 제작자이며, *Image Comics* 소속 Greg Rucka와 Michael Lark의 *Lazarus* 시리즈 및 *Big Finish*의 *Doctor Who* 세계관 각본을 맡았다. 더불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Star Wars: From a Certain Point of View* 기념일 앤솔로지 시리즈에 기고자로 참여했으며, IDW의 전연령판 *Star Wars Adventures* 만화 각본을 담당하였다. Adam의 원작 소설로는 *Made to Kill*과 *The Burning Dark* 등 수많은 작품이 있으며, 데뷔작 *Empire State*는 *SciFi Now*와 *Financial Times*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